

다니엘서 - 번호 5

칠십 년

Jeff Pippenger

2023-11-29

여호야김은 유다의 마지막 세 왕 중 첫째였으며, 그가 바벨론에 의해 정복되었을 때 남유다의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 70년은 성경 예언에 나오는 첫 번째 왕국인 바벨론이 통치할 기간을 가리킨다. 이사야 23장에서는 두로의 창녀가 예언적으로 '한 왕의 날들'로 규정된 상징적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라고 한다. 성경 예언에서 왕은 곧 왕국을 뜻하며, 70년에 해당하는 유일한 왕국은 바벨론이었다.

그 역사 동안 교황권을 상징하는 두로의 음녀는 잊혀질 것이다. 상징적인 칠십 년의 끝에 그녀는 다시 기억되어 나아가 땅의 모든 왕국들과 음행할 것이다. 영적 음행은 교회와 국가의 결합이라는 불법적인 관계이다. 상징적인 칠십 년의 끝에 교황권은 상징적인 칠십 년의 끝에 두로의 음녀가 음행하는 모든 왕들로 대표되는 유엔과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상징적인 칠십 년 동안 통치하는 왕국은 두 뿔을 가진 땅의 짐승인 미국이다.

다니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바벨론의 70년 역사를 개괄하며, 그러므로 그 장들은 땅의 짐승의 두 뿔 모두의 역사를 대표한다. 4장과 5장은 바벨론의 첫 왕과 마지막 왕을 지목하고, 이 두 장은 합하여 땅의 짐승과 그 두 뿔의 역사를 밝힌다. 두 뿔과 땅의 짐승 자체에 대한 심판은 첫 왕과 마지막 왕의 심판으로 대표된다. 느부갓네살의 심판은 '일곱 때' 동안의 추방이었고, 그는 풀과 이슬로 2,520일을 들짐승처럼 살았다. 벨사살의 심판은 벽에 쓰였고, 2,520이라는 수로 환산되었으며, 이로써 땅의 짐승과 그 두 뿔의 심판이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로 대표됨이 밝혀진다. 이는 두 왕의 증거에 근거하며, 그 두 증인은 처음과 마지막을 대표한다.

"일곱 때"는 재림주의에게는 걸림돌이므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보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은 70년 동안 통치한 민족(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상징이며, 상징적 70년 동안 통치하는 왕국에 대한 심판의 상징이다. 윌리엄 밀러가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제시할 때, 그는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짐승으로 2,520일을 살았다는 기록을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를 뒷받침하는 예언적 증거들 가운데 하나로 사용했다. "일곱 때"는 스가랴 4장의 기초석이자 머릿돌이다. 예수님, 화이트 자매, 이사야와 베드로는 그것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돌로 지목한다. 그것은 성경 예언의 정점이 되는 교리이지만, 셋째 천사의 사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에게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

다니엘서의 처음 여섯 장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시작부터 "일곱 때"가 제시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의해 폐위되었을 때, 70년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다. 역대기는 그들이 왜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시드기야는 왕위에 오를 때 스물한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열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호와와의 입으로 말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앞에서 스스로 낮추지 않았다. 또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거역하였다. 그는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곧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았다. 더욱이 제사장들의 지도자들과 백성 모두가 이방 나라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 크게 범죄하였고,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와의 전을 더럽혔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시며 거듭 보내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학대하여, 마침내 여호와와의 진노가 그의 백성에게 일어나 더 이상 치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가 갈대아 왕을 그들에게 오게 하시니, 그가 그들의 성소에서 칼로 그들의 젊은이들을 죽였고, 청년이나 처녀나 노인이나 나이 들어 구부러진 자까지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을 모두 그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의 전의 크고 작은 모든 기구들과 여호와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고관들의 보물, 이 모든 것을 그가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으며, 그 궁전들을 모두 불태우고 그 안의 귀한 기구들을 다 멸하였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그는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고, 그들은 바사 왕국이 통치할 때까지 그와 그의 아들들의 종이 되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 하심이니, 땅이 그 안식할 날들을 누리기까지였다. 그 땅이 황폐한 동안에는 안식을 지켜 칠십 년이 차기까지였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또 조서로 써서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셨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내게 명하셨다. 그의 모든 백성 중에 너희 가운데 누가 있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시기를 바라노니, 그는 올라가라. 역대하 36:11-23.

노예 생활로 보낸 칠십 년은 예레미야의 말씀, “그 땅이 안식년을 누릴 때까지, 황폐해 있는 동안 내내 안식하였다”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가 인용하고 있는 역대기의 그 구절을 제외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땅이 “안식년을 누린다”고 언급한 곳은 단 한 군데뿐이다. 그 대목은 레위기 25장과 26장에 있다. 25장은 땅이 그 안식년의 쉼을 누리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26장은 그 언약의 지침들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일곱 배”의 저주를 개괄한다.

여호야김의 운명은 포로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는데, 이 포로 생활은 다니엘이 9장에서 모세의 ‘저주’와 ‘맹세’라 부른 것의 한 요소였다. 다니엘은 ‘일곱 배’의 저주를 이해했는데, 이는 그가 9장에서, 예레미야의 칠십 년 예언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연수를 깨달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그가 왕으로 즉위한 첫해에, 나 다니엘은 책들을 통해 여호와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에 이를 것이라 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다니엘 9:2.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만이 아니라 ‘책들’을 통해 그 칠십 년을 이해했다. 그가 이해한 또 다른 책은 모세의 글이었다. 그의 기도에서 그는 칠십 년 종살이의 ‘저주’가 모세의 ‘맹세’였음을 밝힌다. 다니엘 9장에서 ‘맹세’로 번역된 단어는 레위기 26장에서 ‘일곱 번’으로 번역된 것과 같은 단어다. 현대의 어떤 신학자가 무엇을 주장하든, 유다가 바빌론에서 칠십 년 동안 포로 된 것은 ‘일곱 번’의 저주가 성취된 것이었다. 보려는

마음만 있다면 대낮처럼 분명하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은 여호와 앞에 안식년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여섯 해 동안 너희 밭에 씨를 뿌리고, 여섯 해 동안 너희 포도원을 가지치고 그 열매를 거두려니와,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여호와를 위한 온전한 안식, 곧 안식년이 되리니 너희는 너희 밭에 씨를 뿌리지 말고 너희 포도원의 가지를 치지 말지니라. 너희 수확에서 저절로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듬지 않은 포도나무의 포도를 모으지 말라. 이는 그 땅이 안식하는 해임이라. 그 땅의 안식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남종과 너희 여종과 너희 품꾼과 너희와 함께 머무는 거류민과, 너희 가축과 너희 땅에 있는 들짐승들에게도 그 모든 소산이 먹을 것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안식년을 일곱 번, 곧 일곱 해를 일곱 번 계수하라. 그러면 안식년 일곱 번의 기간은 사십구 년이 될 것이요, 그 후 일곱째 달 열흘, 곧 속죄일에 너희는 너희 온 땅에서 희년의 나팔을 울리게 할지니라. 레위기 25:1-9.

땅을 쉬게 하라는 규례에서, 땅을 여섯 해 동안 경작하고 한 해 동안 쉬게 하는 일곱 차례의 주기가, 일곱 번의 칠 년 주기가 성취되었음을 표시하는 희년이 있는 마흔아홉째 해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정적인 점은 희년의 나팔을 부는 일이 속죄일에 이루어져야 했다는 것이며, 따라서 반표상적 속죄일이 1844년 10월 22일에 시작되었을 때, "일곱 때"의 주기를 나타내는 희년의 나팔이 그때 울려야 했다는 점을 가리킨다. 기원전 677년에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시작된 "일곱 때"는 2,520년을 의미하며, 그 기간은 반표상적 속죄일에 마무리되었다. 이 연결은 보려 하지 않는 사람들만 놓칠 것이다. "일곱 때"의 주기는 2,300년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레위기 25장 처음 아홉 절에 기록된 언약 규정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루를 1년으로 보는 원칙'의 가장 심오한 예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신학자들이 양 때를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하게 해 두기 위해 쏟아내는 지어낸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26장의 '일곱 번' 심판이 '일곱 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다.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 단어의 히브리어적 의미는 그 정의 안에 그것을 숫자적 방식으로 적용할 정당성을 충분히 담고 있다. 그러나 히브리어 문법에 대한 자칭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잘못된 전제에 기대어 지탱하는 그들의 결함 있는 논변은 단지 호도일 뿐이다.

26장에서 "일곱 때"로 표현된 심판은, 히브리어를 왜곡하는 일부 현대 신학자들 때문이 아니라 본문의 문맥에 의해 파악된다. 윌리엄 밀러는 히브리어를 전혀 참조하지 않고 자신의 결론에 이르렀고, 영감은 그의 이해가 옳다고 인정했다. 천사들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일곱 때"의 심판이 나오는 장의 문맥을 근거로 그의 이해를 인도했다.

25장의 맥락은 언약의 지침들이 제시되는 부분이며, 26장은 그 언약 지침들을 지킬 때 주어지는 약속된 복을 제시하고, 이어서 그 지침들에 대한 불순종에 관해 다니엘이 '모세의 저주'라고 부르는 것을 명시한다.

여기서의 문맥은 성경 예언에서 하루를 1년으로 보는 원칙이라는 주제이다. 레위기 25장의 처음 구절들은 성경 예언에서 하루가 한 해를 대표함을 밝힌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사람과 짐승을 위한 일곱째 날의 안식과 땅을 위한 일곱째 해의 안식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밝힌다.

너는 여섯 해 동안 네 땅에 씨를 뿌려 그 소출을 거두어들이되, 일곱째 해에는 쉬게 하여 묵혀 두라. 그리하면 네 백성 중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요,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에도 이와 같이 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그리하여 네 소와 나귀가 쉬게 하고,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새 힘을 얻게 하라. 출애굽기 23:10-12.

그 세 구절에서는 사람과 가축에게 주어진 하루의 안식이 땅을 위한 일 년의 안식에 상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의 안식일 계명과 동일한 문법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이 여호와를 위하여 안식을 지키리라. 여섯 해 동안은 네 밭에 씨를 뿌리고, 여섯 해 동안은 네 포도원을 가지치며 그 소산을 거두어들이라.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안식하는 해가 되어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니, 너는 밭에 씨를 뿌리지 말고 포도원을 가지치지 말지니라. 네가 거둔 후에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손질하지 않은 포도나무의 포도를 따 모으지 말라. 이는 그 땅이 쉬는 해이기 때문이니라. 레위기 25:1-5.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일하며 네 모든 일을 하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 날에는 너도, 네 아들도, 네 딸도, 네 남종도, 네 여종도, 네 가축도, 네 성문 안에 머무는 나그네도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다. 출애굽기 20:8-11

두 안식일 계명은 함께 레위기 25장과 26장의 맥락을 드러낸다. 구절을 차곡차곡 맞추어 함께 보면, 그것들은 "엿새 동안 너는 수고하여 네 모든 일을 하며", 또 "여섯 해 동안 너는 네 밭에 씨를 뿌리고, 여섯 해 동안 네 포도원을 가지치며, 그 열매를 거두어들이라"고 증언한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며, "일곱째 해는 땅을 위한 안식의 해,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 될 것이다."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든 땅을 위한 안식일이든, 어느 안식일 계명에서든 '일곱째'로 번역된 말은 레위기 26장에서 '일곱 번'으로 번역된 것과 같은 히브리어 단어이다. 레위기 25장과 26장의 맥락은 성경 예언에서 하루가 1년을 가리킨다는 예언 해석의 원칙에 의해 규정된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예언 해석의 '최초 언급의 원칙'이다.

이 두 장에서 먼저 언급되는 것은 하루를 1년으로 보는 원칙이다. 윌리엄 밀러는 가브리엘과 다른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레위기의 '일곱 때'를 2,520년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이 두 장의 문맥, 곧 25장 처음 다섯 절에 제시된 하루를 1년으로 보는 원칙과 완전히 일치한다.

역대기의 저자는 바빌론이 남유다 왕국을 포로로 끌고 가도록 허용된 이유에 대해, 그것이 땅이 그 안식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땅이 쉼을 누리는 것으로 언급된 다른 유일한 곳은 레위기 25장과 26장에 있다. 성경 예언에서 첫째

왕국으로 바빌론이 통치한 70년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 땅의 짐승이 통치할 상징적 연수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70년 자체가 모세의 저주의 "일곱 때"를 직접 가리킨다.

다니엘서 처음 여섯 장에 제시된 예언들을 연구하기 시작할 때, '일곱 때'의 저주뿐만 아니라 '일곱 때'의 축복도 그 각 장의 요소임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7년 주기를 일곱 번 채운 기간은 일곱째 달 열흘, 곧 대속죄일에 울려 퍼지는 희년의 나팔로 표시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사실은 "일곱 때"를 다니엘서 8장 14절의 2,300일과 연결해 준다. 또한 예언적 1년은 360일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며, 360일을 "일곱 때" 동안 거듭 더하면 2,520일이 된다.

다니엘이 책들을 통해 예레미야가 밝힌 연수를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이 원수의 땅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는 현실에 언젠가 깨어난다면 필요하다고 규정된 회개의 응답의 모든 요소를 다루는 기도를 시작했다. 다니엘의 레위기 26장 기도의 끝에, 가브리엘이 다니엘이 '들었던' 그 환상, 곧 이천삼백 일의 환상을 깨닫게 하려고 나타났다. 가브리엘은 먼저 다니엘의 백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가 '정해졌다'고 다니엘에게 알리며 말을 시작했다.

칠십 이레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정해졌나니, 허물을 마치며 죄를 끝내며 죄악을 속하고 영원한 의를 드러내며 환상과 예언을 봉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붓기 위함이라. 다니엘 9:24.

그 구절에서 '정해졌다'로 번역된 단어는 '잘려 나가다'를 뜻하며, 따라서 2,300일에서 70주가 잘려 나가게 되어 있었다. 기원전 457년의 세 번째 칙령을 기점으로 다니엘의 백성에게는 유예 기간으로서 예언적 70주가 주어졌다. 예언적 70주는 490년에 해당한다. 세 번째 칙령 이후 490년이 지난 서기 34년에 고대 이스라엘은 스테반을 돌로 쳤고, 그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사백구십 년의 유예 기간의 시작점을 지정하는 세 가지 칙령에 앞서 있었던 포로기는 70년이였다. 그 70년은 고대 이스라엘이 결코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의 쉼을 그 땅이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땅을 위한 70년의 안식은 모세의 서약을 어긴 사백구십 년(혹은 연 단위의 칠십 주) 때문에 초래된 것이었다.

레위기 25장의 언약을 거스르는 490년의 반역은 땅이 그 안식을 누리도록 70년의 포로 기간을 가져왔다. 그 70년의 포로 기간은 세 칙령으로 이어졌고, 그것들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490년의 은혜의 기간을 표시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490년으로 된 두 번의 은혜의 기간을 보게 된다. 그 세 칙령은 세 천사의 기별을 예표하는데,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째는 북왕국을 향한 '일곱 때'의 첫 번째 진노가 끝날 때인 1798년에 임했다. 세 번째 천사는 세 번째 칙령 이후 2,300년이 지난 1844년 10월 22일에 임했는데, 이때 '진노의 마지막 끝'도 함께 임했다.

첫 번째 진노의 끝과 마지막 진노의 끝 사이의 46년 동안 예수께서는 밀러파 성전의 기초를 놓으셨고, 그 기초석은 "seven times"였다. 그 돌은 처음에는 재림주의에게 기초석(또는 걸림돌)이 되고, 마지막에는 재림주의에게 머릿돌과 마감석(또는 묘비)이 될 것이었다. 1798년부터 1844년까지의 역사 속에서 세 천사의 기별의 도래를 나타내는 세

칙령은 또한 다니엘서의 첫 세 장을 나타낸다.

다음 글에서 첫 여섯 장을 살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더 잘 이해되면, 신자들은 전혀 다른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고 확고하다는 것이다. *The Faith I Live By*, 345.